

**FIRST LANGUAGE KOREAN**

**0521/12**

Paper 1 Reading

**May/June 2017**

INSERT

**2 hours**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This Insert contains the reading passages for use with the Question Paper.

You may annotate this Insert and use the blank spaces for planning. This Insert is **not** assessed by the Examiner.



먼저 다음 설명을 잘 읽으십시오.

이 첨부 시험지에 읽기시험 문제 관련 지문이 있습니다.

이 첨부 시험지 공란에 연습 답안을 써도 됩니다. 이 시험지에 쓴 연습 답안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This document consists of **5** printed pages and **3** blank pages.

Text A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1 번 문제에 모두 답하십시오.

### Text A

아래 글은 남산골에 사는 쇠퇴한 선비에 대한 이회승의 글 <딸각발이>입니다.

'딸각발이'란 것은 '남산골 선님'의 별명이다. 왜 그런 별호가 생겼느냐 하면, 남산골 선님은 지나 마르나 나막신을 신고 다녔으며, 마른 날은 나막신 굽이 굳은 땅에 부딪쳐서 딸각딸각 소리가 유난하였기 때문이다.

#### <중략>

그런데, 이 남산골 선님은 마른 날 나막신 소리를 내는 것이 그다지 애깃거리가 될 것도 5  
없다. 그 소리와 아울러 그 모양이 펍 초라하고 궁상이 다닥다닥 달려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인생으로서 한 고비가 겨워서 머리가 희끗희끗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변변치 못한 10  
벼슬이나 한자리 얻어 하지 못하고 (그 시대에는 소위 양반으로서 벼슬 하나 얻어 하는 것이 유일한 욕망이요, 출세요, 영광이요, 사업이요, 목적이었던 것이다), 다른 일, 특히 생업에는 아주 소질이 없어서 아예 손을 댈 생각조차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극도로 비참한 생활을 해 가는 것이다. 그 꼬락서니라든지 차림차림이야 여간 장관이 아니다.

두 볼이 야월 대로 야위어서 담배 모금이나 세차게 빨 때에는 양 볼의 가죽이 입 안에서 서로 맞닿을 지경이요, 콧날은 날카롭게 오뚝 서서 피와 지성만이 내 발털 대로 발려 15  
있고, 사철 없이 말간 콧물이 방울방울 맺혀 떨어진다. 그래도 두 눈은 영채가 돌아서 무력이라든지 낙심의 빛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아래위 입술이 쪼그라질 정도로 굳게 다문 입은 그 의지력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 <중략>

이러한 화상이 꿩 대로 꿩 맨 험 망건을 도토리같이 눌러 쓰고, 조글조글한 험 갓을 좀 20  
뒤로 젖혀 쓰는 것이 버릇이다. 비록 때가 꾀죄죄하게 흐르는 도포를 걸치고 나막신은 신었을 망정 의관에는 온갖 격식을 다 갖추어 차리고 다닌다. 걸음을 걸어도 나막신을 신은 일인들 모양으로 경망스럽게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느릿느릿 갈지자 걸음으로, 뼈대만 영성한 호리호리한 체격일망정, 그래도 두 어깨를 툇 젖혀서 가슴을 빼기고, 고개를 희번덕거리기는커녕 결눈질 하나 하는 법 없이 눈을 내리깔아 코끝만 보고 걸어가는 모습, 25  
이 모든 특징이 '딸각발이'란 말 속에 전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선님들은 그다지 출입하는 일이 없다. 사랑이 있든지 없든지 방 하나를 따로 차지하고 들어 앉아서 남루하나마 의관을 바르게 하고, 대개는 꿇어 앉아서 수 많은 유교 서적을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내리 외는 것이 날마다 그의 과업이다. 이런 친구들은 집안 살림살이화는 아랑곳없다. 이런 선님의 생각으로는 청렴결벽을 생명으로 삼는 선비로서,

재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어찌 감히 이해를 따지고 가릴 것이냐? 오직 예의염치가 있을 뿐이다. 인(仁)과 의(義) 속에 살다가 인과 의를 위하여 죽는 것이 몇몇하다. 30

겨울이 오니 딸나무가 있을 리 만무하다. 동지달 비좁은 얼음판 냉돌에 변변치도 못한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으니, 사뭇 뼈가 저려 올라오고 다리 팔 마디에서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 몸이 곧아오는 판에, 사지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안간힘을 꾀뾀 쓰면서 이를 악물다 못해 박박 갈면서 하는 말이, '요놈, 껌뻌한 추위란 놈 같으니, 네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마는, 어디 내년 오뉴월에 두고 보자.'하고 벼르더란 이야기가 전하지마는,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각발이'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다. 사실로 졌지마는 마음으론 안 졌다는 앙큼한 자존심, 꼬장꼬장한 고지식,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을 안 켜는 지조, 이 몇 가지가 그들의 생활 신조였다. 35

실상 그들은 사대주의에 젖어 명나라 사람인 척 했던 부류가 아니었다. 우리 나라를 소중화(小中華)로 만든 것은 어쭙지 않은 관료들의 죄이요, 그들의 허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강직하였다. 목이 부러져도 굴하지 않는 기개, 조선시대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맞서다 처형된 사육신도 이 샌님의 부류요, 병자호란 때 청에게 항복하기를 거절하여 중국에 끌려가 참형을 당한 삼학사도 '딸각발이'의 전형인 것이다. 국위와 왕위 계승에 있어서 명·청의 승낙을 얻어야 했을 만큼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면서도 우리 나라가 주체성을 잃지 않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치를 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 샌님 혼의 덕택일 것이다. 국사에 통탄할 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직접 임금에게 직언한 것도 이 샌님의 족속인 유림에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임진당년에 국가의 운명이 다하게 된 절박한 시기에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의 두목들도 다 이 '딸각발이'기백의 구현인 것이 의심 없다. 40 45 50

구한 말엽 단발령이 내렸을 적에, 각지의 유림들이 맹렬하게 반대의 상서를 올리면서, '이 목은 잘릴지언정 이 머리는 깎을 수 없다'라고 부르짖고 일어선 일이 있었으니, 그 일 자체는 미혹하기 짝이 없었지만 죽음도 개의하지 않고 덤비는 그 의기야말로 본받을 직하지 않을 바도 아니다. 이와 같이, '딸각발이'는 온통 못생긴 짓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점도 적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궤궤한 샌님이라고 넘보고 깔보기만 하기에는 너무도 좋은 일면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55

현대인은 너무 약다. 전체를 위하여 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본위로만 약다. 백년대계를 위하여 영리한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일, 코 앞의 일에만 아름아름하는 임시방편에 현명하다. 청렴결백에 밝은 것이 아니라, 극단의 이기주의에 밝다. 이것은 실상은 현명한 것이 아니요, 우매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제 꾀에 제가 빠져서 속아 넘어갈 현명이라고나 할까. 60

우리 현대인도 '딸각발이'의 정신을 좀 배우자. 첫째, 그 의기를 배울 것이요, 둘째, 그 강직을 배우자. 그 지나치게 청렴한 미덕은 오히려 분간을 하여 가며 배워야 할 것이다.

Text B 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2 번 문제에 답하십시오.

### Text B

다음은 금장태의 저서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 가운데 일부입니다.

‘선비’라는 명칭은 신분을 가리키는 계급적 의미와 인격적 의미의 두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선비는 ‘사대부’라는 단어와 더불어 특정한 신분 계층을 나타내지만 참된 선비는 그러한 상층 신분 속에 편안히 살고자 하는 존재가 아니라, 양반 계층 선비를 이르는 ‘사’와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군자’를 함께 아우르는 ‘사군자’로서의 인격적 존재의 선비를 뜻한다.

5

전통사회에서 선비는 그 사회의 정당성을 지키는 양심이요,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성이었으며,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인격의 모범이요 기준으로 인식되었다. 선비는 온화하고 깨끗하며, 단아하고 겸허하여야 한다. 또한 선비는 근면하고 검소하며, 청렴하면서도 마음이 항상 넉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비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회지도층이 지녀야 할 품성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다듬어 간다면, 높은 수준의 건강한 시민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0

선비는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생명의 근본적인 힘으로 인식되어왔다. 우리는 역사적 흐름에서 선비가 그 시대사의 방향을 이끌어 갔던 사례를 오늘의 관점에서 재확인해 보아야 한다. 곧 국가체제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사회규범과 제도가 그 시대의 선비들에 의해 제시되고 지탱되었던 삼국시대부터, 엄격한 의리론의 행동 주체로서 선비가 등장한 조선사회에 이르기까지, 시대마다 선비의 역사적 위상은 뚜렷하였다. 선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도덕의 타락을 비판하여 바로잡기도 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불의에 항거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사회의 가치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때로는 그 시대의 문화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림으로써 한 시대에서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지성으로서의 책임을 담당해 왔다.

15

20

그러나 대한제국 말기의 상황에서처럼, 선비들이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서 의견을 달리하여 대립하기도 하고, 그 갈등이 사회발전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었다. 지성인의 판단과 신념이 항상 똑같을 수 없음은 어찌면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쪽도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의도의 순수함과 그 실천에 있어서의 진실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를 진정한 지성이요 선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5

시대와 사회의 변동에 따라 선비정신의 표현양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전통사회의 ‘선비상’을 그대로 현대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과 단절하고 현대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사회에 나타난 ‘선비상’을 바로 알게 된다면,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선비상’을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사회는 언제나 다음 시대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시대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전통사회에서 보여진 선비의 사회적 기능에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주의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0

전통사회의 선비가 보여 준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선비는 이제 신분적 지배층도 아니요, 지식과 권력을 독차지하는 계층도 아니다. 여러 당파로 나뉘어 자신들의 집단을 위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왜곡된 지식인도 아니다. 도덕과 예법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사회의 진보와 개혁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인간적인 인격의 모범이며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지성의 원천으로서의 ‘선비’라야 오늘날에 적합한 선비일 것이다. 35

전통문화에서 선비의 위치가 핵심적이고 선비정신이 숭고한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선비의 역할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양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비가 지배신분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누리고 유지하는데 젖어 있다면, 그들은 신분상 선비이지만 사실은 선비정신의 파괴자일 뿐이다. 사실상 선비들이 신분의식에 따른 체면에 사로잡혀 서민적 노동이나 직업을 천하게 보고 스스로 가난을 불러들이며 빈 꺾데기뿐인 양반의 신분만을 높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선비의 위선이요 사회적 기생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신분을 빌어 백성의 재물을 가로챌다면 그것은 착취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0 45

#### <중략>

선비는 도덕성과 의리의 정당성의 중심적 역할을 함으로써 한 사회와 역사 앞에서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다. 욕망이나 권력에 봉사하는 도구로 타락한 지식인은 비록 신분이 선비일지라도 진정한 선비가 될 수 없다. 선비는 그 역사적 전통 속에서 한편으론 불의에 대해 비판하고 항거하는 투지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비가 그 사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역사를 의롭게 이끌어 갈 지성이라면, 그 길은 끝없는 자기 극복이자 항상 새로운 자기 창조의 길이어야 한다. 조선시대의 의리가 그대로 현대사회의 의리일 수 없다는 사실은 전통사회와 오늘의 시대적 차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선비가 의리의 시대적 변천 방향을 스스로 제시할 수 없고 또 그 변화를 넘어서 이념적 보편성과 역사적 연속성을 스스로 꿰뚫어 볼 수 없다면, 그는 그 의리를 실천하는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의리의 규범적 형식을 새롭게 규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 지성이러야 비로소 선비의 진정한 면모를 갖췄다고 할 수 있다. 50 55





**BLANK PAGE**

---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o avoid the issue of disclosure of answer-related information to candidates, all copyright acknowledgements are reproduced online in the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Copyright Acknowledgements Booklet. This is produced for each series of examinations and is freely available to download at [www.cie.org.uk](http://www.cie.org.uk) after the live examination series.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